

효율적 자원회수 ·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기공식

포천시는 6월 4일 신북면 만세교리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최대 현안 사항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기공식을 가졌다.

박운국 포천시장과 서효원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월봉 포천그린센터주식회사 대표, 각 기관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기공식은 천연기념물 제324호인 솔부엉이 방사, 경과보고, 감사

패 수여, 축사, 기념 발과시 순으로 진행되었다. 자원 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벽산ENG 등 6개사가 참여해 설립한 포천그린센터주식회사가 BTO

형태의 사업으로 운영하며, 1일 80톤 소각 규모의 소각로 1기와 1일 40톤 처리 규모의 소각로 2기 등으로 건립된다.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 일원 4만9천532㎡ 부지에 총 168억원(국·도·시비), 민간자본 1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지하층, 지상4층의 소각동과 시민들을 위한 수영장과 축구장, 사우나 등의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서며 오는

2009년 5월 완공 예정이다.

이번 설립될 자원회수시설은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기 전 단계에서 소각처리 함으로써 감량화시키고, 폐기물을 860℃ 이상 고온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수영장과 사우나시설에 냉·난방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오염물질 제거시설 등 여러 공정을 거쳐 법정기준보다 훨씬 낮은 농도로 굴뚝을 통하여 배출되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상태를 굴뚝 자동측정시스템(TMS)을 통하여 환경부에서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전관관을 마을에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항상 감시가 가능하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후원자 · 봉사자의 헌신적 사랑 돋보여 사회복지법인 포천자혜원 창립 73주년 기념식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포천자혜원(대표 이종희)이 6월9일 창립 제 7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박운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고영채 경기도립포천병원장, 윤이용 포천신문 운영위원장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현섭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종희 대표이사는 "시대의 극한 상황으로 국가의 도움은 말할 나위도 없었고 자식들로부터의 부담마저 기대할 수 없어 오갈 데 없는 거리의 노인들을 모셔다가 숙식을 제공하고 함께 생활하는 순수한 동포애와 형제애 정심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며 "지금까지 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정신과 물심 양면 아낌없는 후원과 봉사로 공헌해 주시는 후원자들과 봉사자님 여러분들의 헌신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공기 좋고 전망 좋은 포천자혜원에 요양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열색이 좋아 보여 기쁘고 오늘날 자혜원이 존립하기까지는 선대부터 지금까지 낱다른 희생정신이 뒤따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자혜원은 일제 강점기인 1934년5월6일 사단법인 경성자혜원을 설립해 현재에 오기까지 암울했던 고난의 시대를 꿋꿋하게 이겨내며 국내 최고의 시설부지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노인 요양원으로 발전을 거

들어왔다. 또한 전국 시설평가에서 올해 보기 드문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어느 시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포천자혜원 법인 및 시설 연혁

◇1934년 05월 06일: 사단법인 경성자혜원 설립

◇1957년 10월 : (법인명의 변경) 재단법인 경성자혜원

◇1957년 07월 13일: 재단법인 서울자혜원 법인설립허가(보사부 제437호)

◇1973년 01월 11일: (사업장 소재지 이전) 의정부시 신곡동 507번지 ◇1977년 09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서울자혜원 법인설립 재인가사 회복지법 제정 시행) (보사부 제 521호)

◇1987년 01월 20일: 제4대 이사장(현) 이종희 취임

◇1989년 07월 05일: (시설명칭 제정 등록) 자혜의 집

◇1996년 11월 19일: 노인복지시설(무료 양로원·무료 요양원) 설치허가(포천군 제1호·제2호)

◇2000년 02월 14일: 양로원·요양원 신축 준공 승인

◇2001년 05월 02일: (법인명의 변경) 사회복지법인 포천자혜원

◇2004년 07월 23일: 전문요양원 증축 준공 승인

◇2004년 11월 30일: 전문요양원 설치 신고 및(포천시 제4호)

◇2006년 09월 01일: 시설원장(현) 이정호 취임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목회단상

얻은 것과 찾은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것과 찾아가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찾을 것도 많다. 행복도 찾아 하고, 향락을 찾아 헤매는 사람도 많다.

미국의 저명한 문학가인 페더(William Feather)는 그가 알았던 어느 청년에 대하여 말했다. 그는 어느 날 길에서 100불 짜리 지폐를 발견했다. 그 후 그는 길바닥만 내려다보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다. 10년 뒤에 그가 얻은 것은 2만9천개의 단추와 5만4천개의 핀과 돈 12불과 구부정한 어깨였다고 한다. 그리고 잃은 것은 찬란한 햇빛과 별들의 반짝임과 길에서 스



김창성 내촌김리교회 목사

쳐가는 사람들의 미소와 가로수의 싱싱한 녹색 잎들과 푸른 하늘과 사는 맛이였다. 이 젊은이는 내려다보고 살며 많은 손해를 본 것이다. 위를 보라. 희망이 보인다. 옆을 보라 미소가 보인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신다. 골로새서 3장2절에 "너희는 위에 것을 생각하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문의) 031-532-2489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⑦

남북경협 명암



서희석 대성기업(주) 대표이사

북한의 자연자원과 남한의 공업제품이 교환되는 교역 형태

남북경협은 1989년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2천만 달러 정도였으나 1990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억 달러를 넘기 시작했다. 이후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해서 2003년에는 7억2천422만 달러를 넘었다. 최근까지도 일부에서는 북한과의 경협을 일방적 퍼주기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짝사랑이나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독일의 경우 동서독으로 갈라진 직후부터 통일될 때까지 우편 교류, 도로 이용 및 동독에 대한 다양한 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다. 오히려 우리의 경우에 정말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 어떤 형태든 남북간의 교류는 통일을 향한 밑거름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경협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다른 나라와의 경제 협력보다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가 있고 그 동안의 교역이 대북 식량 차관, 비료 지원 및 철도·도로 연결 자재와 장비의 제공 같은 비거래성 교역의 증가가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남한이 북한의 제2 교역 대상국으로 될 정도로 남북간의 교역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남한에 대한 반출이 북한 전체 수출 규모의 37.0%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의 남한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외형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도 불구하고 통일 전 동서독과 현재의 중국과 대만의 교역량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남한과 북한의 교역량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6.4%, 전자제품이 4.9%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 교역의 또 다른 특징은 위탁 가공 교역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용 가방을 북한에서 처음 위탁 생산한 거래로 2003년에는 위탁 가공 교역액이 전체 교역의 25.5%, 거래성 교역의 45.3%인 1억 8,500만 달러였다. 이는 남북간의 거래에 있어 위탁 가공 교역이 실질적 거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북 교역의 모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탁 가공 교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섬유 제품의 비중이 1996년부터 20% 이상으로 높아져 2003년에는 반입량의 86.2%, 반출량의 7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북한의 노동력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한 분야가 섬유 부문이기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 전자 및 전기 제품이 설비 제품형 위탁 가공 형태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위탁 가공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수는 109개(무역업 등록회원업체의 0.1%)로 대북 참여 비율이 극히 낮은데 이는 남한 기업의 대북 진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한 간의 체제의 차이로 인해 경제 외적인 문제와 의사소통의 문제, 자유로운 입출국 문제, 북한의 열악한 물류 시스템, 남북한 사이에 직접적인 금융 시스템의 부재 등 많은 문제

아름다운 생활 ⑦

건강의 적신호-비만

비만이라고 하면 보통 살이 찐 것, 체중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에서 말하는 비만은 신체에 지방조직이 과잉 축적된 상태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 너무 많이 축적된 것이 문제입니다. 체중과다인 서울자혜원 법인설립 허가(보사부 제437호) ◇1973년 01월 11일: (사업장 소재지 이전) 의정부시 신곡동 507번지 ◇1977년 09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서울자혜원 법인설립 재인가사 회복지법 제정 시행) (보사부 제 521호) ◇1987년 01월 20일: 제4대 이사장(현) 이종희 취임 ◇1989년 07월 05일: (시설명칭 제정 등록) 자혜의 집 ◇1996년 11월 19일: 노인복지시설(무료 양로원·무료 요양원) 설치허가(포천군 제1호·제2호) ◇2000년 02월 14일: 양로원·요양원 신축 준공 승인 ◇2001년 05월 02일: (법인명의 변경) 사회복지법인 포천자혜원 ◇2004년 07월 23일: 전문요양원 증축 준공 승인 ◇2004년 11월 30일: 전문요양원 설치 신고 및(포천시 제4호) ◇2006년 09월 01일: 시설원장(현) 이정호 취임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한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신의 체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시간에 효과를 보려고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 오래 지속하기 힘들고 신체에 무리를 주게 되어 궁극적으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또한 강도가 높은 운동은 체지방보다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주로 사용하게 되므로 체지방 감량 효과가 낮습니다. 게다가 식욕이 더욱 왕성해져 운동 후 음식 섭취를 참기 힘들고, 탈수 후 식사를 하고 수분이 보충되면 체중이 금방 원상으로 복귀하거나 더욱 살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강도 운동보다 꾸준한 계획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 강도가 낮은 운동에서 점차 높여가야 하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적당한 뜰과 체열 발산을 해야 하며 에너지소비가 너무 많아 체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산소 운동(달리기, 등산, 걷기, 수영, 에어로빅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만은 쉽게 찾아오지만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후 자신의 건강상태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전체 인체 구성 성분 중 지방이 15~18% 정도, 여자는 20~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남자는 25%이상 여자는 30% 이상일 경우를 비만으로 판단합니다. 비만은 다른 질환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을 유발하고 종국에는 생명과 관계되는 심각한 위험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비만은 치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만은 초기에는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외관상 남들이 살찌었다고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벼운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무릎 발목관절통, 요통, 피곤함, 전신무력감, 어지러움 증, 월경불순, 불임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



뷰티컨설팅 송명선 010-9757-7648

각종 공업용 포장자재 전문

HD, PE, PP 원단생산 쇼핑백 · 비닐인쇄가공

대일비닐총판

취급 품목

- 비닐, 락카, 이형제, 실리콘, 면장갑, 반코팅 장갑, 완전코팅 장갑, 고무장갑, PVC장갑, 랩, 장화, 물장화, 보류, 작업복, 보호 테이프, 각종 테이프, 각종 끈, 수동밴드, 자동밴드, 마대, 마스크 등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282-12
 ☎ 031) 544-3627 FAX. 031) 544-3637
 HP. 011-9070-3627
 대표 : 김영재

이전 장소
 대일비닐총판
 부인터 사거리
 의정부
 양주
 포천